

전용부두·인프라 갖춰 관광 큰손들 돈 펴낼 수 있게 해야

‘크루즈 관광시대’ 전남의 과제

여수·목포 대형 크루즈 접안 못해 광양항에 기항

입출항 시스템 간소화·쇼핑·숙박시설 조성 시급

올해 여수국제크루즈항, 광양항, 목포항을 통해 32차례 크루즈선이 입항하는 등 전남지역도 본격적인 크루즈 관광 시대를 맞았다. 소비 성향이 강한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크루즈선은 국내 ‘관광 지도’를 확 바꿔놓을 수 있는 호재이지만 전용부두와 기반 시설 조성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국내 ‘크루즈 전쟁’ 본격화=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크루즈 여객 지출 규모는 총 1억1800만달러(1298억원)이고, 8만급 크루즈선 1척이 입항할 경우 부가가치는 무려 2억7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관광 큰손’으로 통하는 중국인의 크루즈선 탑승 1인당 지출 비용은 113만원으로, 전체 평균(58만원)의 두 배가 된다. 수요도 지난 2011년 16만명에서 2020년 28만명으로 늘어난 등 연평균 6%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중국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지자체간 경쟁도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제주도는 경쟁항에 최대 5대의 크루즈선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22만급 선석 공사를 하고 있고, 인근엔 128억원을 들인 크루즈 관광테마거리 조성할 계획이다. 부산도 내년 완공을 목표로 15만급 신국제터미널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 인천도 2016년까지 15만급 크루즈 전용부두를 만들고, 강원도는 속초항에도 3만급 여객선 2척이 접안할 수 있는 여객부두와 여객터미널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 시급=이번에 전남을 찾은 크루즈가 여수국제크루즈항이 있는데도 다목적 항인 광양항에 기항하는 것은 14만급 대형 크루즈가 여수국제크루즈항에 접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수 크루즈항은 8만급 크루즈가 입항할 수 있고, 목포에 조성 중인 크루즈 전용부두도 5만급이다. 지난해 여수세계박람회 당시 입항했던 크루즈도 대부분이 5만급 이하였다. 이 지역에는 갈수록 대형화되는 크루즈를 맞을 부두가 없는 셈이다.

그나마 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대교 개통으로 대형 크루즈를 광양항에 세운 뒤 이 다리를 통해 관광객을 여수와 순천으로 이동시키는 ‘관광 루트’가 개발돼 이번 로얄캐리비안의

■ 바다 위 리조트 크루즈 산업

- ◆ 6월 29일 입항 미리너호
 - 총톤수 13만 8279t
 - 길이 311m
 - 높이 69m
 - 탑승객 3840명
 - 승무원 1185명
- ◆ 지난해 국내 크루즈여객 지출 규모 총 1298억
 - 8만톤급 1척 입항
 - 부가가치 2억7000만원
 - 중국인 1인당 지출비용 113만원
- ◆ 전남 입항가능 크루즈 부두
 - 여수항 8만급
 - 목포항 5만급(조성중)
 - 광양항 14만급

기항이 가능했다. 내년에 3000명의 중국 압웨이 관광객이 타고오는 14만급 호화 크루즈가 광양항에 기항하는 이유도 전남지역에 큰 배가 닿을 내릴 수 있는 전용 크루즈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크루즈 관광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광양항은 올해 2개 선사 7항차, 내년에 1개 선사 13항차의 크루즈 입항이 계획돼 있다. 이들 크루즈는 8만5000~14만급의 대형 크루즈다.

화물 선적을 주로 하던 광양항이 크루즈 전용 항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입출항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쇼핑, 숙박 등 부대시설을 갖춰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내년까지 광양항의 중대형여객터미널 주차공간을 활용해 크루즈 관련 시설을 유지하고 세관, 출입절차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CIQ(관세, 출입국심사, 검역) 시스템을 갖춰 대형 크루즈선의 입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물 선적을 주로 하던 광양항이 크루즈 전용 항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입출항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쇼핑, 숙박 등 부대시설을 갖춰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내년까지 광양항의 중대형여객터미널 주차공간을 활용해 크루즈 관련 시설을 유지하고 세관, 출입절차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CIQ(관세, 출입국심사, 검역) 시스템을 갖춰 대형 크루즈선의 입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물 선적을 주로 하던 광양항이 크루즈 전용 항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입출항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쇼핑, 숙박 등 부대시설을 갖춰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내년까지 광양항의 중대형여객터미널 주차공간을 활용해 크루즈 관련 시설을 유지하고 세관, 출입절차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CIQ(관세, 출입국심사, 검역) 시스템을 갖춰 대형 크루즈선의 입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물 선적을 주로 하던 광양항이 크루즈 전용 항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입출항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쇼핑, 숙박 등 부대시설을 갖춰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내년까지 광양항의 중대형여객터미널 주차공간을 활용해 크루즈 관련 시설을 유지하고 세관, 출입절차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CIQ(관세, 출입국심사, 검역) 시스템을 갖춰 대형 크루즈선의 입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물 선적을 주로 하던 광양항이 크루즈 전용 항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입출항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쇼핑, 숙박 등 부대시설을 갖춰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내년까지 광양항의 중대형여객터미널 주차공간을 활용해 크루즈 관련 시설을 유지하고 세관, 출입절차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CIQ(관세, 출입국심사, 검역) 시스템을 갖춰 대형 크루즈선의 입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물 선적을 주로 하던 광양항이 크루즈 전용 항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입출항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쇼핑, 숙박 등 부대시설을 갖춰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내년까지 광양항의 중대형여객터미널 주차공간을 활용해 크루즈 관련 시설을 유지하고 세관, 출입절차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CIQ(관세, 출입국심사, 검역) 시스템을 갖춰 대형 크루즈선의 입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물 선적을 주로 하던 광양항이 크루즈 전용 항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입출항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쇼핑, 숙박 등 부대시설을 갖춰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내년까지 광양항의 중대형여객터미널 주차공간을 활용해 크루즈 관련 시설을 유지하고 세관, 출입절차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CIQ(관세, 출입국심사, 검역) 시스템을 갖춰 대형 크루즈선의 입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물 선적을 주로 하던 광양항이 크루즈 전용 항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입출항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쇼핑, 숙박 등 부대시설을 갖춰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내년까지 광양항의 중대형여객터미널 주차공간을 활용해 크루즈 관련 시설을 유지하고 세관, 출입절차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CIQ(관세, 출입국심사, 검역) 시스템을 갖춰 대형 크루즈선의 입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물 선적을 주로 하던 광양항이 크루즈 전용 항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입출항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쇼핑, 숙박 등 부대시설을 갖춰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내년까지 광양항의 중대형여객터미널 주차공간을 활용해 크루즈 관련 시설을 유지하고 세관, 출입절차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CIQ(관세, 출입국심사, 검역) 시스템을 갖춰 대형 크루즈선의 입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물 선적을 주로 하던 광양항이 크루즈 전용 항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입출항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쇼핑, 숙박 등 부대시설을 갖춰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내년까지 광양항의 중대형여객터미널 주차공간을 활용해 크루즈 관련 시설을 유지하고 세관, 출입절차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CIQ(관세, 출입국심사, 검역) 시스템을 갖춰 대형 크루즈선의 입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물 선적을 주로 하던 광양항이 크루즈 전용 항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입출항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쇼핑, 숙박 등 부대시설을 갖춰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내년까지 광양항의 중대형여객터미널 주차공간을 활용해 크루즈 관련 시설을 유지하고 세관, 출입절차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CIQ(관세, 출입국심사, 검역) 시스템을 갖춰 대형 크루즈선의 입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물 선적을 주로 하던 광양항이 크루즈 전용 항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입출항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쇼핑, 숙박 등 부대시설을 갖춰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내년까지 광양항의 중대형여객터미널 주차공간을 활용해 크루즈 관련 시설을 유지하고 세관, 출입절차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CIQ(관세, 출입국심사, 검역) 시스템을 갖춰 대형 크루즈선의 입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물 선적을 주로 하던 광양항이 크루즈 전용 항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입출항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쇼핑, 숙박 등 부대시설을 갖춰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내년까지 광양항의 중대형여객터미널 주차공간을 활용해 크루즈 관련 시설을 유지하고 세관, 출입절차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CIQ(관세, 출입국심사, 검역) 시스템을 갖춰 대형 크루즈선의 입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물 선적을 주로 하던 광양항이 크루즈 전용 항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입출항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쇼핑, 숙박 등 부대시설을 갖춰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내년까지 광양항의 중대형여객터미널 주차공간을 활용해 크루즈 관련 시설을 유지하고 세관, 출입절차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CIQ(관세, 출입국심사, 검역) 시스템을 갖춰 대형 크루즈선의 입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물 선적을 주로 하던 광양항이 크루즈 전용 항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입출항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쇼핑, 숙박 등 부대시설을 갖춰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내년까지 광양항의 중대형여객터미널 주차공간을 활용해 크루즈 관련 시설을 유지하고 세관, 출입절차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CIQ(관세, 출입국심사, 검역) 시스템을 갖춰 대형 크루즈선의 입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물 선적을 주로 하던 광양항이 크루즈 전용 항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입출항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쇼핑, 숙박 등 부대시설을 갖춰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내년까지 광양항의 중대형여객터미널 주차공간을 활용해 크루즈 관련 시설을 유지하고 세관, 출입절차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CIQ(관세, 출입국심사, 검역) 시스템을 갖춰 대형 크루즈선의 입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물 선적을 주로 하던 광양항이 크루즈 전용 항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입출항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쇼핑, 숙박 등 부대시설을 갖춰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내년까지 광양항의 중대형여객터미널 주차공간을 활용해 크루즈 관련 시설을 유지하고 세관, 출입절차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CIQ(관세, 출입국심사, 검역) 시스템을 갖춰 대형 크루즈선의 입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물 선적을 주로 하던 광양항이 크루즈 전용 항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입출항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쇼핑, 숙박 등 부대시설을 갖춰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내년까지 광양항의 중대형여객터미널 주차공간을 활용해 크루즈 관련 시설을 유지하고 세관, 출입절차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CIQ(관세, 출입국심사, 검역) 시스템을 갖춰 대형 크루즈선의 입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물 선적을 주로 하던 광양항이 크루즈 전용 항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입출항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쇼핑, 숙박 등 부대시설을 갖춰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내년까지 광양항의 중대형여객터미널 주차공간을 활용해 크루즈 관련 시설을 유지하고 세관, 출입절차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CIQ(관세, 출입국심사, 검역) 시스템을 갖춰 대형 크루즈선의 입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물 선적을 주로 하던 광양항이 크루즈 전용 항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입출항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쇼핑, 숙박 등 부대시설을 갖춰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내년까지 광양항의 중대형여객터미널 주차공간을 활용해 크루즈 관련 시설을 유지하고 세관, 출입절차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CIQ(관세, 출입국심사, 검역) 시스템을 갖춰 대형 크루즈선의 입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물 선적을 주로 하던 광양항이 크루즈 전용 항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입출항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쇼핑, 숙박 등 부대시설을 갖춰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내년까지 광양항의 중대형여객터미널 주차공간을 활용해 크루즈 관련 시설을 유지하고 세관, 출입절차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CIQ(관세, 출입국심사, 검역) 시스템을 갖춰 대형 크루즈선의 입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물 선적을 주로 하던 광양항이 크루즈 전용 항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입출항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쇼핑, 숙박 등 부대시설을 갖춰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내년까지 광양항의 중대형여객터미널 주차공간을 활용해 크루즈 관련 시설을 유지하고 세관, 출입절차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CIQ(관세, 출입국심사, 검역) 시스템을 갖춰 대형 크루즈선의 입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물 선적을 주로 하던 광양항이 크루즈 전용 항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입출항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쇼핑, 숙박 등 부대시설을 갖춰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내년까지 광양항의 중대형여객터미널 주차공간을 활용해 크루즈 관련 시설을 유지하고 세관, 출입절차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CIQ(관세, 출입국심사, 검역) 시스템을 갖춰 대형 크루즈선의 입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물 선적을 주로 하던 광양항이 크루즈 전용 항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입출항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쇼핑, 숙박 등 부대시설을 갖춰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내년까지 광양항의 중대형여객터미널 주차공간을 활용해 크루즈 관련 시설을 유지하고 세관, 출입절차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CIQ(관세, 출입국심사, 검역) 시스템을 갖춰 대형 크루즈선의 입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물 선적을 주로 하던 광양항이 크루즈 전용 항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입출항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쇼핑, 숙박 등 부대시설을 갖춰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내년까지 광양항의 중대형여객터미널 주차공간을 활용해 크루즈 관련 시설을 유지하고 세관, 출입절차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CIQ(관세, 출입국심사, 검역) 시스템을 갖춰 대형 크루즈선의 입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물 선적을 주로 하던 광양항이 크루즈 전용 항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입출항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쇼핑, 숙박 등 부대시설을 갖춰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내년까지 광양항의 중대형여객터미널 주차공간을 활용해 크루즈 관련 시설을 유지하고 세관, 출입절차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CIQ(관세, 출입국심사, 검역) 시스템을 갖춰 대형 크루즈선의 입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물 선적을 주로 하던 광양항이 크루즈 전용 항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입출항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쇼핑, 숙박 등 부대시설을 갖춰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내년까지 광양항의 중대형여객터미널 주차공간을 활용해 크루즈 관련 시설을 유지하고 세관, 출입절차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CIQ(관세, 출입국심사, 검역) 시스템을 갖춰 대형 크루즈선의 입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물 선적을 주로 하던 광양항이 크루즈 전용 항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입출항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쇼핑, 숙박 등 부대시설을 갖춰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내년까지 광양항의 중대형여객터미널 주차공간을 활용해 크루즈 관련 시설을 유지하고 세관, 출입절차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CIQ(관세, 출입국심사, 검역) 시스템을 갖춰 대형 크루즈선의 입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물 선적을 주로 하던 광양항이 크루즈 전용 항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입출항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쇼핑, 숙박 등 부대시설을 갖춰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내년까지 광양항의 중대형여객터미널 주차공간을 활용해 크루즈 관련 시설을 유지하고 세관, 출입절차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CIQ(관세, 출입국심사, 검역) 시스템을 갖춰 대형 크루즈선의 입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 전담조직 꾸리고 콘텐츠 개발을”

여수상의, 크루즈 토론회

여수·광양항에서 크루즈 산업이 발전하려면 지자체가 전담 조직을 꾸려 치밀한 전략 수립과 함께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진희 해운 시장분석센터장은 지난 27일 여수시청에서 여수상공회의소와 여수광양항만공사 주최로 열린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한 여수광양항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황 센터장은 ‘여수·양 크루즈 산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지역의 강점으로 여수엑스포 개최 경험과 천혜의 자연환경, 역사유산과 사할 등 풍부한 관광자원, 항만 등 교통 인프라를 들었다.

동북아 지역의 크루즈 수요 증대와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정부의 크루즈 육성 정책, 크루즈 선박 증가 등도 기회요인으로 꼽았다.

약점으로는 담보상태에 있는 크루즈 선박 기항과 수요 저조, 마케팅 조직 미흡과 서비스 인력 부족, 특화상품 부재 등을 꼽았다. 특히 국내의 크루즈 기항지 경쟁 심화와 제주를 제

외한 지역적 차별성 미흡, 수도권과의 접근성 한계 등을 위협요인으로 진단했다.

황 센터장은 그 대안으로 ‘크루즈 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년 단위의 3단계 전략을 세울 것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여수·광양항의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크루즈·마리나산업의 성공사례를 분석,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열렸다.

황진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는 ‘광양만권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세계 마리나산업 동향과 국내 마리나산업의 여건을 분석해 광양만권 마리나산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심장섭 여수상의 회장은 “여수·광양항은 크루즈 전용부두를 확보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크루즈와 마리나 산업을 잘 육성해 여수·광양항이 남해안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센터장은 “여수·양 크루즈 산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지역의 강점으로 여수엑스포 개최 경험과 천혜의 자연환경, 역사유산과 사할 등 풍부한 관광자원, 항만 등 교통 인프라를 들었다.



로열 캐리비안 미리너호(Royal Caribbean Mariner of the seas)를 타고 광양항에 도착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지난 30일 인근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을 둘러보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장외로 나간 민주 “국정원 개혁”

서울시장 당원 보고대회 ... 부산·광주 등 순회집회 대국민 여론전

민주당은 지난 30일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및 대선 당시 여권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 첫 장외투쟁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 촉구 서울시장 당원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이 국회 밖에서 집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등에서 순회 집회를 여는 등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정원 국조 등 원내 투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날 보고대회에서 김한길 대표는 “대한민국은 국정원이 정치 개입하고 집권당이 정보기관을 정치에 이용

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면서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의 정당성과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을 위해서라도 대선 전후에 벌어진 정치공작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히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예외없이 처벌하겠다는 확고한 의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의 진솔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정원이 다시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장외집회는 국정원 국조를 앞두고 대야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임한다.

그러나 권영세 주중대사의 정상화

담 대화록 관련 언급이 담긴 ‘녹취파일’ 입수경위를 놓고 법적 다툼이 휘말리게 되면서 추가 폭로 여부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녹취파일 녹음자로 알려진 월간지 기자가 ‘절취된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28일 민주당 당직자와 폭로 당사자인 박병계 의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홍지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녹취본 100건은 월간지 H기자가 휴대전화로 녹음한 것”이라며 “H기자가 휴대전화 기종을 바꾸면서 ‘기기 안에 녹음된 파일을 옮겨 달라’고 민주당 당직자에게 부탁하는 과정에서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절취 용의자’로 지목한 민주당 K당직자는 “H기자가 새 휴대전화로 교체했다며 구 휴대전화의 데이터를 신 휴대전화로 옮기는 과정에 내 휴대전화에 있는 외장메모리카드를 빌려준 바 있다”면서 “하지만 H기자는 이 외장메모리를 나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냥 가져갔고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H기자가 대선 이후 녹취파일의 존재를 거론해 이를 달라고 부탁했고 H기자가 제공 의사를 밝혔으나, 나중에 H기자가 차일피일 미뤄 결국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면서 최근 두 사람 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한편,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당에서 확보하고 있으나 아직 공개하지 않은 100여개 ‘녹음파일’ 가운데에는 대선 예비후보였던 무소속 안철수 의원에 대한 언급과 네거티브 캠페인, 개헌 등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공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TRUE PRODUCTS, REAL PEOPLE

엄홍길 대장과 함께 대한민국을 오르십시오!

밀레 기술고문
엄홍길

밀레 「한국명산 16좌 원정대」 모집

엄홍길 대장과 함께 한국명산 16좌를 오르십시오. 도전하는 자만이 산의 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 ▶ 참가신청 : 광주/전라지역 밀레 백화점 및 대리점 또는 아래 참가 신청가능 매장에서 접수 (자세한 사항은 매장 혹은 www.millet.co.kr 참조)
- ▶ 참가특전 : 참여하신 모든 분께 밀레 기법품 증정
- ▶ 주최 : MILLET / 주관 : Mtour / 후원 : 61 광주일보사

열다섯번째 산행 7월 25일 (목) / 모악산 *일정 및 등산코스는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가능 매장

백화점 롯데광주점 062-221-1686 현대광주점 062-510-7738 신세계광주점 062-360-1253 이음렛 롯데이음렛광주수원점 062-616-2221 익산밀레이음렛점 063-839-9233 밀레전주이음렛점 062-366-5555 NC순천 061-726-5417 밀레익산밀레점 063-838-9233 밀레전북김제점 063-544-7651 밀레익산중양점 063-852-7447 밀레전주송천점 063-276-3031 밀레광주작명점 062-266-8848 밀레목포하림점 061-282-8523 밀레광주용봉점 062-529-6200 밀레전남광양점 061-793-2744 밀레광주진남점 062-674-5888 밀레광주참단점 062-973-7775 밀레전남여수점 061-666-1921 밀레전남순천점 061-745-3068 밀레광주주동점 062-225-2121 밀레광양칠성점 061-761-7524 밀레전남여천점 061-691-6565 밀레순천중앙점 061-752-3380 밀레전남영광점 061-352-7070 밀레해남점 061-535-5425

WWW.MILLET.CO.KR MILLET MOUNTAIN BY EXPERIENCE

*고객문의 02.306-7033 *대리점개설문의 02.3153-3203

빛의만평

- 김종두

체감온도 150°C